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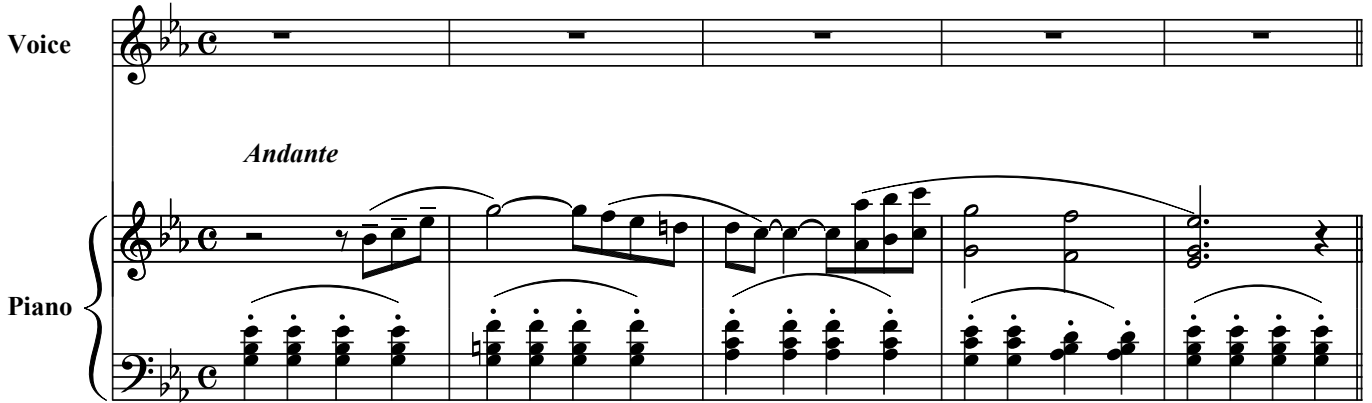
아무도 모르라고

김동환 詩. 임원식 曲

Voice

Andante

Piano



6

떡 - 갈 나무 숲 속에 졸 졸 졸 흐 르 는 아 무 도



11

모 르 는 샘 물 이 길 래 아 무 도 모 르 라



15

고 도로 덮고 내 - 려 오 지 요

19

mf
나 혼자 마 시곤

24

f
아 무 도 모 르 라 고 도 로 덮고 내 - 려 오 는 이

28

기쁨이여

32 *mf*

나 혼자 마시곤

36 *f*

아무도 모르라 고 도 로 덮고 내 - 려 오 는 이

40

기쁨이여